



본란의 기사는 본회의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본회 國際部(TEL: 553-0941/7)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歐洲 通商情報

### 가. CTV/CDP 케이스 豫備 判定 임박

執行委, 5월말경 豫備 判定을 내릴 것으로 豫想. 執行委側은 예비 덤핑 마진율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韓國 業체의 덤핑 마진율이 10~13% 정도일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음.

豫備判定이 언제 내려질지 분명히 밝혀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CDP케이스 調査 進行中. 執行委, 덤핑 關稅率 決定說 부인.

또한 執行委에서 누설된 것이 분명한 20~30%의 CDP 덤핑 마진율에 대해서도 집행위 부인. CDP 케이스 調査 開始된 지 2년이 되었음.

### 나. VCR 카세트 테이프(Tape & Reel) 調査期間 연장

韓國 및 홍콩產 VCR 카세트 테이프에 대한 豫備 反 덤핑 關稅가 EC理事會에 의해 2개월 연장. 원칙적으로 예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후 4개월내에 理事會가 確定 關稅 賦課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본 Case의 경우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輸出業체의 동의를 거쳐 調査 期間이 2個月 연장된 것임.

이에 따라 理事會는 6월24일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함. 확정 反덤핑 關稅率은 豫備判定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다. 半導體 反덤핑 調査 종결 協商

EC는 日本產 半導體에 대한 反덤핑 調査(1987년 7월 7일 개시)를 종결짓기 위한 최저가격 설정문제에 대해 協商中이나 아직 미결.

어떤 형태의 合意(輸出業체의 Undertaking, 또한 雙務協定 등)가 이루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임. 최저가격은 현재의 市場價格보다 훨씬 낮게 책정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

美國의 이와 유사한 덤핑 調査가 美·日 半導體 協定으로 종결되었고 同協定은 EC에 의해 GATT에 제소되었음.

EC의 反덤핑 調査 개시후 일부 日本 製造業체(가장 최근의 例로서는 Fujitsu를 들 수 있음)들은 EC 內에 半導體 제조공장 설립계획을 발표하였으며 EC는 半導體에 대한 新原產地 규정을 제정하였음.

### 라. EIAF 會長 EC 電子産業 保護 要請

프랑스 電子産業協會(EIAF-Electronics Industry Association of France)會長인 Mr. Caillot(Thomson社)는 EC 域外 경쟁자들로부터 EC 電子産業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新措置를 취하도록 촉구.

최근 행한 연설에서 그는 Screwdriver 生産에 대한 엄격한 법규와 더불어 가격 산정, 反덤핑, 그리고 原產地에 대한 新規定을 포괄하는 EC 政策의 채택을 요구. 그는 EC 電子産業이 技術開發 및 재구조(restructuring)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財政支援의 폭이 넓어져야 하고 EC 電子會社들도 상호성의 원칙에 입각, EC 域外 市場參與에 EC가 域外 生産者들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市場 참여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주장. 그는 이러한 制限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EC 生産業체들은 世界市場에서 非EC 競爭者들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

프랑스 産業은 그 保護主義의 성향으로 유명하며 EIAF의 견해가 EC 執行委 內에서 많은 支持를 받을 것

으로는 보이지 않음.

#### 마. Hitachi, EC에 R&D Center 設立 예정

Hitachi, 유럽에 2개의 R&D Center 설립 발표. 이것은 완전한 EC 내 産業基地 구축을 위한 Hitachi의 계획을 반영.

同 R&D Center 설립은 EC 내 産業基地 구축을 위한 제 3 단계로서 제 1 단계는 生産品 組立(assembly), 제 2 단계는 EC 내 生産品 제조임.

EC 域外 業체들은 점차적으로 技術 및 R&D Center 를 설립하고 있는데 이것은 投資가 행해져도 EC가 技術의인 측면에서 별로 이득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바. Philips Microchip 활동 재구성

Philips는 Microchip 販賣量 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IC活動 재구성 계획. 이것은 점차 增大되고 있는 IC 市場에서 EC 域外 競爭者들과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하고자 하는 의도 반영.

#### 사. GATT 定期的 貿易政策 Review 개시

GATT(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理事會는 각국 貿易政策에 대한 정기적 Review 계획 공식 승인. 本 Review는 每2年마다 행해질 것이며 EC, 美國, 캐나다, 日本의 貿易政策은 精密 Review 될 것임.

本 Review時 GATT는 外國에 대해 차별정책을 취하고 있는 國家들에 대한 提訴를 조사하게 될 것이며 提訴가 근거있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關聯國에 대해 불리한 판정을 내리게 될 것임.

또한, GATT는 紛爭解決 Mechanism 改善案에 합의.

#### 아. EACEM Brussel 사무소 設立 計劃

EACEM(The European Association of Consumer Electronic Manufacturers), Brussel에 사무소 설립 계획 발표.

EC에서 各國 家電製品協會를 대표하고 있는 EACEM은 최근 많은 家電製品에 대한 反덤핑 提訴(VCR, Color TV 등)의 주역임. 지금까지 EACEM은 Brussel에 상설 사무소가 없었음. Brussel 사무소가 설립될 경우 執行委와 EACEM 間에 보다 활발한 접촉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執行委에 대한 EACEM의 영향력이 커질 것임.

## 2. 美國 通商情報

### 가. 韓·美 通商 協商 타결

韓國이 美國 通商法 수퍼301조에 의한 優先協商 對相國(PFC)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美國의 新通商法에 따라 '89. 5. 30까지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에 대한 外國의 불공정 무역관행(PFP)과 이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를 지정 발표토록 되어 있었다.

이를 벗어나려는 韓國의 끈질긴 노력은 美國과의 일련의 通商協商 과정에서 많은 난관과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지난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제 3차 韓·美 고위실무 협상에서 그간 난제로 남아있던 韓國의 국산화 정책과 外國인 투자문제에 완전 합의, PFC 지정에서 韓國이 제외되도록 타결지었다.

나아가서 마지막까지 미결상태였던 農産物 문제에서도 이 분야가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美國 측이 韓國의 제안을 수용케됨에 따라 양측이 원만한 타결을 보게 되었다.

이번 협상 타결은 韓·美 양국관계 뿐 아니라 우리의 國際經濟 사회에서의 지위향상에 好材로 작용, 韓國이 세계 정치·경제 무대에서 공정무역 질서를 준수하여 교역하고 있는 나라라는 인식을 대외에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협상 타결의 시한이 1년이라는 것과 通信 開放, 換率 問題, 持的所有權 문제들이 잔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율적 對美通商 協力 체제 구축에 힘쓰고 업계는 對美 수입 확대, 합작투자 강화, 지속적인 通商 로비 활동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